

##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 녹색복지

송인주(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1. 도시와 도시의 자연

국정과제 중에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 확충”이 있다. 휴지는 국립공원, 생태우수지역 등 환경부에서 관리해야 할 자연환경이 얼마나 많은데 조그만 생태휴식공간까지 신경 쓸 수 있겠는가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0%가 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도시에 산다. 사람들이 떠올리는 도시이미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어쨌든 상당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다양한 인공구조물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그 사이사이로 다듬어진 나무가 심겨진 녹지를 떠올릴지도 모른다. 언제부터인지 도시와 자연은 분리되어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도시생활의 쾌적함을 위해 인공구조물 위에 자연을 보충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도시는 자연의 일부이다. 자연의 토대 위에 도시가 만들어져 도시 곳곳에는 자연의 모습이 여전히 구석구석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무수한 개발사업과 함께 도시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때로는 사라져버린 자연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많은 조경공간도 만들어졌다. 도시유희지를 이용해 공원을 만들고, 복개되거나 직강화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나름 도시를 쾌적한 공간으로 보는 시각도 생겨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도시생물다양성이 주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에서는 도시의 자연을 복원하고 확충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였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들에서는 생태교육, 축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이러한 문화는 널리 보급되어 이제는 익숙한 도시문화가 되었다. 비록 규모가 작고 다소 인위적인 모습이 혼재되어 있을지라도 도시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연공간은 멀리 떨어진 웅장한 자연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 2. 도시환경 여건변화

인구증가, 경제성장, 편리한 생활 등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으로 보였던 사회전반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2030년 우리나라 인구는 정점에 이르고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구구성은 여성가구주, 노인부부, 단독가구, 조손가구 등 가구유형이 다양화되고 1~2인 가구 중심의 소핵가족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03년 6.3%에서 2005년 7.1%로 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고령화에서 초고령화 사회까지의 고령화 속도가 26년이 소요될 전망으로 다른 OECD 국가보다 빠르고 서울의 경우 이보다 빠른 불과 2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OECD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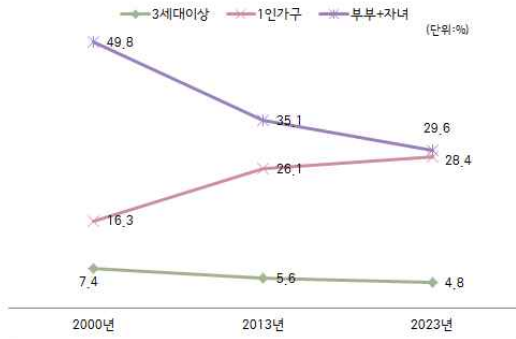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 세대구성별 주요 가구유형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장래가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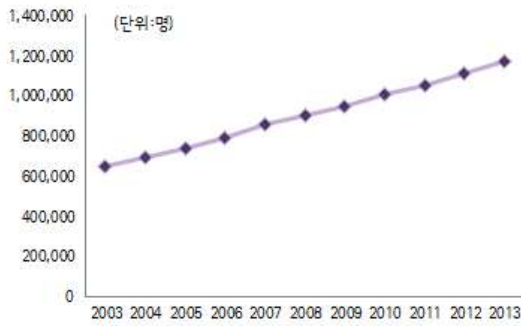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65세 이상 고령자수  
출처 : 서울통계(2013)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IT의 발달로 다방면에 걸쳐 수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자리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의 증가 등 또 다른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개발과 변화에 대한 욕구보다는 삶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제는 주춤해진 경제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 외부 사회환경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민이 원하는 복지서비스 1위는 건강 분야이며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 역시 보건의료시설이 20.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서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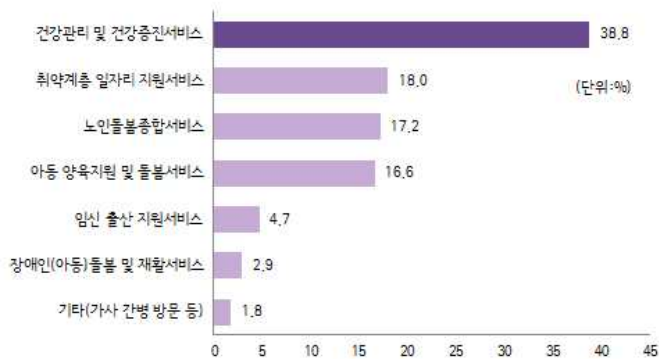


그림 3.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 서비스

출처 : 서울통계(2013)

### 3. 녹색복지 수요증가

최근 사회적 이슈이거나 사회적으로 요구가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용어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먹거리복지, 에너지복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복지와 자연환경의 시각을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생태복지, 산림복지, 환경복지, 녹색복지 등의 개념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자연자원과 생태계서비스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보편적 복지의 필수요소로 바라보는 유사개념들이다. 산림청은 산림복지 개념정립 및 정책개발연구(2011), 산림복지종합계획(2013)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부도 2012년부터 환경복지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시차원에서는 서울시가 최근 녹색복지 기준 및 지표마련 연구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이 일생동안 보편적인 녹색복지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토대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은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가 있다. 국민의 41%가 월 1회 이상 숲을 찾고 있고 선호하는 여가활동 1순위가 등산이며, 산림치유, 트레킹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산림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산림청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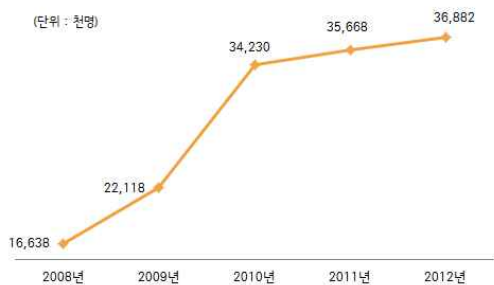


그림 4. 산림욕장 이용객

출처 : 산림청, 산림복지종합계획(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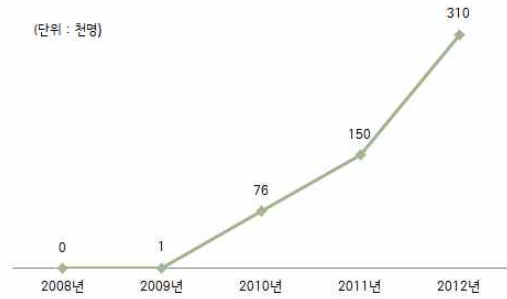


그림 5 치유의 숲 이용객

출처 : 산림청, 산림복지종합계획(2013)

도시의 일상으로 돌아와 도시민의 수요를 조사해보면 서울시민의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하여 48%가 쾌적하다고 답하였으나 신체적, 정신적 휴식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66%가 필요하다는 답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공원산책이 1순위였다(서울시 2014, 미발표자료).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 먼 곳을 방문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녹색을 통한 휴식과 치유를 가능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 주변환경 쾌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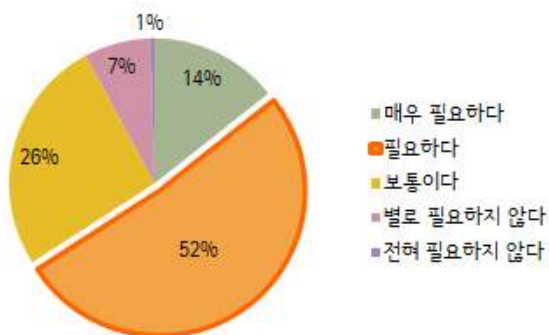


그림 7. 휴식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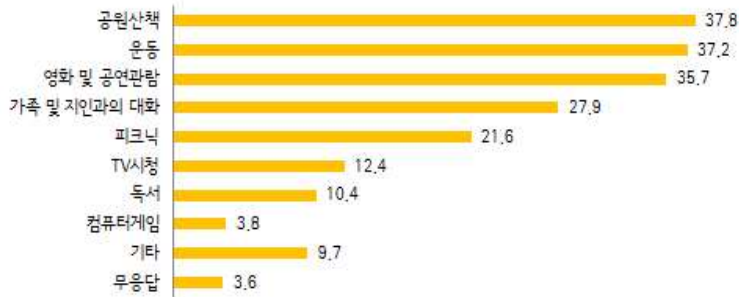


그림 8. 필요한 여가활동

#### 4. 지속가능한 삶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도시에서 주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의 조성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은 도시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환경에서 받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녹색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혜택이 녹색복지 차원에서 공정하게 배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도시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일상 생활환경에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학교, 놀이터, 공공녹지 등에서 자연공간을 제공하여 인지적, 신체적 발달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년층이 손쉽게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집주변의 질 높은 풍부한 녹지는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녹색복지는 사람과 더불어 생물, 그리고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개념이다. 여가 및 휴양을 위한 녹지공간은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의 주요한 서식공간이 되기 때문에 자연 속의 도시에서 인간이 다시 자연을 만나는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삶의 토대가 된다.

지속가능발전은 인간과 자원의 공생, 개발과 보전의 조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 등을 추구한다. 그동안 추구했던 공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서 나아가, 그 공간과 사회의 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속가능성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산림청(2011), 산림복지 개념정립 및 정책개발 연구  
 산림청(2013), 산림복지종합계획  
 서울시(2014), 녹색복지 기준 및 지표수립 연구(미발표)  
 서울통계(//stat.seoul.go.kr)  
 인구주택총조사(//www.census.go.kr)  
 OECD통계(//stats.oecd.org)